

일본 전자부품업계, 복합화·고성능화 가 화두

일본 전자부품 업계가 소형화에 이어 '복합화'와 '고성능화'를 새로운 화두로 삼고 신규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섰다.

3월 6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TDK·NEC도킨 등은 서로 다른 부품을 일체화한 제품을 확충하고 대형이면서도 다수의 콘텐츠를 하나로 전환할 수 있는 제품도 양산할 계획이다.

일 업체들은 단품의 소형화를 추진할 경우 회로가 복잡해져 기능을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한 수요일지라도 복합적이면서 성능이 월등한 고성능 부품에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TDK는 4~5월 사이에 전류를 제어하는 콘덴서와 전기 신호를 조정하는 인덕터를 일체화한 전자잡음 방지 부품 2기종을 제품화한다. 이들 제품은 디지털기종에도 특히 공간 활용 설계가 필요한 휴대폰용 부품으로 특화돼 출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에 걸쳐서는 신제품과 같은 복합 부품을 월 1000만~2000만개 양산하고 있다.

MS, 중국 MSN사업 강화

소프트웨어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시장에서 MSN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 MSN사업부는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속해 있던 중국·대만·홍콩 시장을 분리해 미국 본사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했다.

MS의 이 같은 방침은 1억3700만명의 네티즌을 가진 세계 2위의 인터넷 시장 중

국을 둘러싼 현지 업체 및 구글·야후 등 경쟁 다국적기업들의 파상공세 속에서 온라인 미디어사업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MS는 지난해부터 향후 3~5년간 MSN차이나에 연간 1억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까지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S 온라인서비스그룹의 리처드 핑 대변인은 "중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잠재력·성장성·사업가치 때문에 직보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토로라, 저가 휴대폰으로 수익성 잡겠다



지난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토로라가 '감원'에 이어 '저가 휴대폰' 사업을 처방전으로 들고 나왔다.

모토로라 애드 젠더 CEO는 "저가 휴대폰의 생산 원가를 대당 2~5달러씩 더욱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웹 캐스팅을 통한 공개 토론회 형태로 주요 시장분석가와 만난 애드 젠더 CEO는 "저가 휴대폰 사업이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재료보다는 디자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토로라가 공개적으로 저가 휴대폰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저가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토로라의 저가 휴대폰 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이 과연 '시장(규모)'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 여부도 올해 휴대폰 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에이서 "CPU값 인하.비스타효과로 1분기 PC 출하 50% 증가"



에이서의 올 1분기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IDG뉴스서비스는 세계 4위 PC 업체인 에이서 JT 왕 회장이 지난주 있었던 준절 기념 행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뉴스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

왕 회장은 최근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비스타' 효과와 인텔·AMD 간의 경쟁으로 CPU 가격이 떨어지면서 PC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1분기는 전년 동기보다 50%, 연간으로 총 40%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이서 측은 구체적인 1분기 출하량 및 출하량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약 38% 성장을 기록한 에이서는 세계 PC 업체 중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목 받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유럽·아시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델·HP와 함께 '빅3'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미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마이클 델 회장, 3년만에 CEO 복귀



델은 1월 31일 케빈 롤린스 CEO가 사임했으며, 창업자인 마이클 델이 그 자리에 복귀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롤린스 CEO에게 실적 악화 책임을 물어

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꿈쩍도 않던 델 회장 이 결국 용단을 내린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IDC의 리처드 심 애널리스트는 “롤린스가 마이클 델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놀랍지만, 실적을 보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델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며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롤린스는 델의 미래를 너무 자신한 나머지 2006 회계연도엔 600억달러, 2010회계연도엔 800억달러의 매출을 거두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델의 2006회계연도 매출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559억달러였다.

델의 지난해 성장률은 1984년 설립 후 최초로 전체 PC시장 성장률을 밑돌았고, 3, 4분기에는 세계 PC시장 1위 자리를 HP에 내줬다.

영국 차량사고뎀 운전중 통화내역 조회



영국 정부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정

부에 의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화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손에 들고 통화했는지, 핸드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했는지와 무관하게 경찰이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기존의 두 배인 60파운드(약 11만원)로 높아지고 벌점 3점도 함께 부여된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3건의 사망사고와 52건의 비교적 심각한 교통사고, 364건의 경미한 사고가 휴대전화 통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컴퓨터, 무선랜 지원 SW 출시

애플이 무선랜 최신 규격 IEEE802.11n 기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1월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맥프로 데스크톱PC와 9월 출시한 인텔 코어 듀오 기반 아이맥·맥북 등에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802.11n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의 이번 발표는 인텔이 기존 센터리노 플랫폼인 나파의 후속모델로 오는 2분기 중 802.11n 드래프트 모듈이 들어간 산타로사를 출시하고 에이스·아수스·게이트웨이·도시바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때를 같이해 나온 것이다.

802.11n은 802.11a, b, g 규격에 이은 무선랜의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아직 표준규격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비(드래프트) 기술이다. 그러나 MIMO(Multiple In Multiple Out) 방식의 안테나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802.11g보다 통신 범위가 두 배 가량 넓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고

5배까지 빨라 차세대 무선랜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802.11n을 지원하는 라우터 겸용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 ‘에어맥 익스트림 베이스스테이션’을 출시했다.

소니 "동영상 재생 MP3P 출시"

IDG뉴스서비스·테크뉴스월드 등에 따르면 소니는 오는 4월 영국에서 MPEG4와 H.264 포맷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재생하는 ‘NW-A800 시리즈’를 발매한다. 신제품은 240×480 해상도를 지원하는 2인치 LCD를 내장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사용, 2·4·8Gb 모델이 출시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적용된 애플의 ‘비디오 아이팟(30·80Gb)’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존(30Gb)’보다 저장 용량이 훨씬 적지만 부피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신제품의 두께는 아이팟 나노만큼 얇은 9.1mm로 와이셔츠 주머니 속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도 자동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소니의 저전력 설계 기술로 약 8시간 동안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애플·MS·샌디스크·삼성전자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 제품에도 동영상 재생 기능을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 소니의 이번 ‘비디오 워크맨’ 출시는 늦은 감이 있다.

IDG뉴스는 애플이 비디오 아이팟을 내놓은 지 18개월이 지나야 소니가 비디오 워크맨을 내놨다고 전했다.

소니의 신제품은 유럽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캐나다에서도 발매될 예정이다. 가격은 2Gb와 4Gb 제품이 각각 150달러, 200달러며 8Gb 제품은 250달러다.